

# 한국 최초의 신파극 공연에 대한 再論

양승기\*

- I. 머리말
- II. 『신파극 이야기』의 허구성
- III. 1920~30년대의 신파극 서술에 대한 검토
- IV. ‘혁신파극단’의 광고와 ‘단성사’ 공연
- V. <화도대좌> 모방작의 실체
- VI. ‘여성좌’ 공연의 실체
- VII. <불효천벌> 공연과 1909년의 의미
- VIII. 결론 및 남는 문제

## I. 머리말

그동안 한국 최초의 신파극 공연은 1911년 초겨울의 革新團의 <不孝天罰> 공연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이두현 교수가 그의 저서 『韓國新劇史研究』(서울대출판부, 1966)에서 林聖九의 革新團 공연에 관해 언급한 이래로 유민영, 서연호 교수 등의 저서<sup>1)</sup>에서도 별다른

\* 울산대 국문과 교수. 논문으로 「1920~30년대 연극운동론연구」 등이 있음.

1)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흥성사, 1982.

서연호, 『한국현대희곡사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82.

문제제기 없이 오늘에 이르러 오늘날 한국문학계 내지는 연극학계에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물론 이보다 먼저 있었던 李人植의 <銀世界> 공연이 신파극이었다는 주장도 일찌기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이 공연은 창극이었다는 것이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sup>2)</sup> 본고에서는 문제를 '혁신단'의 활동으로 국한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은세계>의 경우는 이두현 교수 이래로 유민영, 서연호 교수 등의 실증적인 검증의 결과로 그 실체가 창극임이 밝혀진 반면, '혁신단'의 공연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이두현 교수의 주장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온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실증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현실이다.

이두현 교수의 주장은 단지 安鍾和의 『新劇史 이야기』(進文社, 1955)에 의거하여 내린 결론인데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11년 초겨울 어느 날 남대문밖 御成座에서 林聖九(1887~1921)의 革新團一行이 演題 <不孝天罰> 外 一篇을 갖고 창립공연의 幕을 올렸다. 그러나 관객은 協律社 공연으로 잘못 알고 들어온 50여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최종 장면까지 남아있는 관객은 6~7명 정도였다. 수입도 겨우 극장세 오원의 절반도 못되는 액수였다. 무대의 연극조건과 첫 날 관객을 시험한 결과 양편이 다 동시에 실패인 것을 깨달은 林聖九는 단 하루밤의 흥행으로 공연을 중단하고 재기공연을 준비하

2) 이는 이두현 교수가 당시 쓰였던 '新演劇'의 의미를 '신파극'으로 국한해서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러나 '신연극'의 의미는 말 그대로 '새로운 극'이었으며, 이는 창극이든 신파극이든, 질적으로 '새로운 극'을 의미하는 용어였다(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줄고 「1920~30년대 연극운동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의 서론 참조). 따라서 <은세계> 공연은 창극이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은세계>의 '신연극'의 의미는 한국연극사 전체로 보아 그 의의를 재조명할 문제이나, 이는 본고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

였다. 이때의 공연은 신문광고도 내지 않았고 극장 정면에 바탕은 백로지로 된 간판에 모필로 ‘혁신단 창립총행’이라 써서 붙였고 그 날 상연할 연제도 역시 작은 간판에 써서 극장 문턱에 붙였을 뿐이었다고 한다.<sup>3)</sup>

이두현 교수는 안중화의 저서의 92~93쪽을 인용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안중화는 ‘혁신단’ 창립이 1911년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오히려 이보다 앞선 1909년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안중화는 위의 저서 말고도 일찍부터 한국연극사에 관한 글들을 발표한 바 있는데<sup>4)</sup> 그 글들에서도 모두 1909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두현 교수의 주장은 『매일신보』의 1912년 2월 18일자에 보이는 <六穴砲強盜>의 선전 기사를 근거로 안중화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끌어들이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안중화의 글에서는 1회 공연은 <불효천벌>이었고 실패하였다는 것을 취하여, 이를 『매일신보』의 선전 기사를 참고한 결과 ‘혁신단’ 최초의 신파극이 1911년 초겨울 <불효천벌>의 공연이라고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근거로 유민영 교수는 더 나아가 한국 신극사의 출발은 1911년 초겨울 임성구의 혁신단 공연 때부터라고 주장<sup>5)</sup>하고 있는데, 이처럼 임성구의 ‘혁신단’의 시작은 1911년 초겨울의 <불효천벌>의 공연부터이며 이것이 한국 최초의 신파극 공연

3) 李杜鉉, 『韓國新劇史研究』, 46~47면.

4) 『舞臺裏面史, 韓國演劇史 로맨스』, 『조선중앙일보』, 33.8.12~9.12.  
 『初創期 秘話』, 『동아일보』, 39.3.23~4.11.  
 『韓國映畫側面秘史』, 春秋閣, 1962.

5) 『한국현대회극사』, 29쪽. 그런데 유민영 교수는 그 이후의 『開化期演劇社會史』(새문사, 1987) 80쪽에서는 ‘1911년초 겨울’이라고 하여 ‘초겨울’이 아닌 ‘초 겨울’로 적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띄어쓰기의 착오 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의도적인 것이라면 1911년 초겨울과는 약 10개월 정도의 오차가 생기게 되므로,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으로 정설화되어 있는 현실이다.

과연 안중화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다면 왜 모두가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믿고 만 것인가. 본고는 이와 같은 안중화의 이야기에 대한 검토부터 출발하여, 당시의 신문자료를 다시금 재검토하고, 안중화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연극사에 대한 언급을 참조로 하여 과연 한국 최초의 신파극은 언제의 무슨 공연이었는데를 추론하여 나갈 것이다.

## II. 『신극사 이야기』의 허구성

안중화의 『신극사 이야기』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일찌기 연재했던 연극계 야사를 확대한 저서이다. <舞臺裏面史, 韓國演劇史 로맨스>(『조선중앙일보』, 33.8.12~9.12)와 <初創期 秘話>(『동아일보』, 39.3.23~4.11)가 그것인데 『신극사 이야기』는 안중화 특유의 입담을 섞어 이것을 완전한 이야기체로 구성하여 놓은, 말 그대로 ‘이야기’인 것이다. 1902년생인 그가 자신이 10세 미만이었던 시절의 다른 사람의 일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결국 안중화는 모든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을 재구성하여 기록한 셈인데, 그 이야기의 그럴듯한 상황 묘사와 소설체의 내용 전개에 의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모든 사실이 실제와 부합하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안중화의 『신극사 이야기』에서 ‘혁신단’에 관한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혁신단 창립 공연 연습은 金順漢의 집 동산에서 진행하였으며 각 본은 <불효천벌>의 한편인데 알 수 없다.<sup>6)</sup> <불효천벌>을 선택한

6) 이두현 교수가 창립공연으로 불효천벌 외 1편이라고 한 것은 이에 근

- 것은 충효의 정신을 권장하자는 뜻이었다. (88~89쪽)
- 2) 개막할 극장은 남문밖 南成社로 결정을 보았는데 남성사는 御成座 전신이다.<sup>7)</sup> 혁신단 일행이 개막에 임했을 때는 초겨울로 들어섰다.<sup>8)</sup> (91쪽)
  - 3) 관객은 협률사 공연으로 잘못 알고 들어 온 50여명에 불과하였으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6,7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튿날 계속해서 공연하지 않기로 선언하였다. (93~94쪽)
  - 4) 그 해 겨울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일본배우 小松에게서 몇 가지 연극을 열심히 배웠다. (95쪽)
  - 5) 어느 날 團成社 측으로부터 교섭이 들어와 공동부담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공연 전에 광고대가 돌았다. ‘혁신단 일행’이라고만 하지 않고 ‘혁신단 임성구 일행’이라고 했다. (111쪽)
  - 6) 상연 예제는 <법지법> <오호천명> <가막돌> <육혈포강도> <진중설>을 교환 닷새 동안을 성황리에 끝냈다. (112쪽)
  - 7) 단성사에서 성황리에 흥행을 마치고 나선 즉시 사동 演興社로 옮겨 계속 개막을 보았다. (115쪽)
  - 8) 5일간 상연 동안 제일 인기 있었던 것이 <육혈포강도>였다. (117쪽)
  - 9) 연흥사 흥행이 끝나는 즉시 인천 초청 공연의 喜報가 날아 왔다. (118쪽)
  - 10) 인천에 극장이 없어서 가설 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인천에 극장을 짓기로 유지들이 약속하자 임성구가 ‘築港社’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134쪽)
  - 11) 그 해 여름철부터 극장 공사를 시작하여 가을에 준공을 보았다. (136쪽)
  - 12) 계절이 꽃 필 무렵이라 약간의 풍세가 있더니만 돌연 거센 해풍이 습격했다.<sup>9)</sup> (139쪽)

거한다.

- 7) 이에 대해서 이두현 교수는 이때의 극장은 御成座였으며 이것의 후신이 南成社라고 수정하고 있다. (앞책, 46쪽)
- 8) 아직 몇년도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그만큼 이 글은 소설적인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다.
- 9) 11)로 보면 임성구의 인천 공연이 여름 전이라는 말이 되고 여기에서

- 13) 이틀간의 공연으로 연극을 끝냈다. 그날 서울에서는 이완용 저격 사건이 발생하였다.<sup>10)</sup> (129쪽)
- 14) 인천에서 걸인의 비참함을 보고 이듬해 걸인 자선 잔치를 벌였다.<sup>11)</sup> (130쪽)
- 15) 병합이 되기까지 인천 공연 이후 광무대와 단성사에서 두어 차례 개막을 가진 후 한동안 연극을 쉬었다. 반년 가까이 휴연하다가 이듬해 봄부터 다시 연극을 개시하였다.<sup>12)</sup> (134쪽)
- 16) 국치 이후에는 군사극에 치중하였고 무대의 군복들도 구한국 시대의 군복을 착용하였다. (135쪽)
- 17) 연흥사 흥행 중 혁신선미단이 조직되었다. 趙重章은 당시 학생으로서 연흥사의 혁신단 연극구경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140쪽)
- 18) 애국적인 연극의 일례로 의병대장 全綠豆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이 연흥사에서 상연되었다. (144쪽)
- 19) 첫 소설극으로 <눈물>을 선택하였다. 이것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편소설을 각색해서 연극화한 시험이다. 필자도 십세 미만 때 이 연극을 보고 실컷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55~156쪽)
- 20) 동절을 앞둔 늦은 가을 소설극 <눈물>을 상연하고 난 직후 걸인 구제잔치를 벌였다. 이것이 자선행사로 처음이다.<sup>13)</sup>(159쪽)

앞뒤가 맞지 않는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 위와 같은 안중화의 설명

---

는 구체적으로 이른 봄이라는 설명이 된다.

- 10) 실제로 이 사건은 1909년 12월 22일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름 전에 공연했다고 하는 사실과 모순이 된다.
- 11)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신문에 소개된 최초의 걸인 잔치는 1914년 1월 18일의 일이다.
- 12) 앞에서 말한 연극은 따라서 1910년 8월 이전의 일이고, 이듬해 봄이란 1911년 봄을 말하는 셈이 된다.
- 13) <눈물>의 공연은 1913년 10월의 일이고 걸인구제잔치는 1914년 1월의 일이다. 그러나 혁신단은 이미 1913년 4월에 <雙玉淚>를 공연한 바 있는데 이것이 연재소설을 극화한 최초의 공연이다. 그리고 이때 필자 스스로 10세 미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공연의 시기도 실제보다 더욱 이른 시기로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전체의 시기가 모두 상향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09년 겨울 창립 공연(<불효천벌>의 1편, 1일간, 남성사에서)-1910년 초 제2회 공연(단성사에서 <육혈포강도>의 4편, 5일간)-다시 연흥사에서 3회 공연-1910년 봄 인천의 가설극장에서 공연-1910년 8월까지 광무대와 단성사에서 공연-(반년 가량 휴연)-1911년 봄부터 다시 공연(연흥사)

이상의 정리를 놓고 볼 때 본고가 검토하고자 하는 문제는 ① 혁신단의 최초공연은 1911년 겨울의 일인가 ② 1회 공연의 레퍼토리는 <불효천벌>인가 ③ 이 1회의 공연은 실패하였는가 ④ 1912년 2월의 <육혈포강도>의 광고가 과연 2회 공연인가 아니면 이에 앞선 또다른 공연이 있었는가 ⑤ 인천 공연은 있었는가 등의 다섯 가지가 핵심이 된다.

그러나 미리 말해 두지만 이와 같은 사실적인 문제는 획기적인 공연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된다. 당시의 공연대본이나 팸플릿이 남아 있지 않는 오늘날의 현실하에서 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단편적인 신문기사와 약간의 회고담과 같은 주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론하는 길일 뿐이다.

### III. 1920~30년대의 연극사 서술에 대한 검토

안중화의 『신극사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혁신단에 관한 다른 언급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이들의 언급을 발표 시대순에 따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① 李元圭, <십년을 하루갓치(4)>, 『동아일보』, 26.1.4.

내가 극계에 처음 발을 드려 노홀 때 즉 조선의 연극이 처음 생기든 때는 내 나희 설혼 두 살 아직 청년이라는 말을 들든 때인데 어느덧 십륙년이란 세월이 그야말로 극 중에서 지나가는 세월가치 뜻업시 지나가고 내 나희는 마흔 일곱 살이 되었습시다그러.<sup>14)</sup> 조선에 맨처음 극단이라고 생긴 것이 립성구(林聖九)를 단장으로 한 혁신단(革新團)이요, 혁신단의 첫 무대가 지금은 일본 사람의 려관이 되었습시다마는 남대문 밖 어성명(御成町)에 잇든 남성사(南成社)이엇답니다. 그 때는 극장세가 십오원밖에 되지 안이하고 관람료도 십전 이십전 삼십전에 학생 소아 군인은 반액으로 하엿답니다. 그 때는 첫 서술이라 그랬는지 밤마다 대입만원(大入滿員)의 성황을 일우어 우리 배우들에게도 상당한 배당이 도라왔습니다.

② 현철, <半島劇界의 消夜談>, 『신민』, 27.9.

그 다음으로 故 林聖九의 一派의 그내들의 團體에는 가장 無識한 集團이라고 볼 수 잇섯다. 劇에 대한 智識은 그만 두더라도 一般常識으로 보아서 可取할 何等의 行蹟이 업섯다. 이내들의 劇團 組織된 源泉은 當時 泥岬 日本人村에 行旅劇團의 日本人 新派劇을 보고 그것을 흉내내게 된 것이다. (...) 따라서 新派의 後續을 비든 모든 群小劇團은 亦是 이 滿洲 背景의 戰爭劇과 軍人劇을 보이게 되었음으로 理由업시 形式만 뿐바다은 朝鮮 所謂新派劇이라 하는 것도 亦是 이것을 뿐바다 오늘날까지 이러한 劇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은 얼마나 進就가 업고 얼마나 墮落의 길을 발바와는 지 알 것이다. (93~94쪽)

③ 윤백남, <朝鮮新劇運動의 沿革>, 『신생』, 29.1.

그 후(圓覺社에서의 李人植의 활동-인용자 주) 二年 곧 一千九百十一年 봄에 南大門 外 御成座라는 日本人 經營의 劇場에서 林聖九君이 一座를 組織하여 旗幟를 올리었으나 아직도 城中人士의 耳目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하였음으로 數朔後에 市內 團成社에 革新團이란 이름으로 出現하여 日本新派 그 中에도 滿鮮으로 巡廻興行하는 所謂 <이

14)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그가 연극을 시작한 때는 1911년임을 알 수 있다.

ナカワリ>(田舎廻) 劇團의 藝題를 模倣하여 大膽히 新派元祖라는 旗幟를 올리게 되었다.<sup>15)</sup>

④ 金在喆, <朝鮮演劇史>(36), 『동아일보』, 31.7.4

一九一一年에 林聖九氏는 金陶山, 金小浪, 梁聖賢, 林容九 諸氏와 같이 革新團이라는 新劇의 一團을 모아 가지고 南大門 밖 御成座에서 흥행하다가 數月後에 團成社로 옮기어 거기서 興行을 繼續하였으며 當時에 上演한 演題는 <法之法>, <六穴砲強盜>, <義兄殺害> 등이었다.

⑤ 안중화, <舞臺裏面史, 朝鮮演劇史 로맨스>, 『조선중앙일보』, 33.8.12~9.12. (인용자 요약 정리)

명치 41년 경성좌에서 진행되는 무대연극은 일청전쟁을 테마로 한 군사극으로 제목은 <군인기질>인데 이것을 임성구가 보았다. (5회, 33.8.17)

제일 먼저 연습에 착수했던 극본은 <불효천벌>이란 5막물이었다. (6회, 33.8.18)

<불효천벌>이란 극은 '경성좌'에서 일본인 '청년파일단'이 상연했던 연극이다. 각본이 몇 개 선정되었다. <불효천벌>에 <효자열녀>, <십삼인의 살해> 등으로 결정되었다. (7회, 33.8.19)

그해<sup>16)</sup> 여름이 되자 남문 밖 어성좌에서 막을 열게 되었다. 첫날밤 올리게 되는 각본은 <불효천벌>이란 극이었고 입장 요금은 십전, 십오전으로 받아서 총수입이 불과 50원 내외였었다. (8회, 33.8.30)

극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관객들이 우르르 몰려 나갔다. 순사가 무대 위에서 범인을 포박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에 놀라 관객들이 도망하여 공연은 실패하였다. 첫회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단성사로 정하고 경성좌에서 해산한 청년파일단의 소송을 선생으로 하여 연습하였다. (9회, 33.8.24)

2회 공연 때부터 朴昌漢이 자금주로 등장하였다. 2회 공연은 예상 외

15) 양승국 편, 『한국근대연극영화비평자료집』, 태동, 1991, 6권, 264쪽.

16) 구체적으로 몇년도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로 성적이 좋았다. 이 때의 연극 역시도 거의 전부가 **군사극**들이었다. (10회, 33.8.26)

인천행, 축항사에서 공연, 연흥사 공연 준비차 상경. 더위는 지나고 산들산들한 초가을 바람이 스미는 때이다. 이때 인천에서 강화로 가는 도중 의병들로 오인을 받았다.<sup>17)</sup> (11회, 33.8.27)

혁신단이 서울에 돌아와서 흥행을 연흥사에서 하게 되었을 때 일심단이란 극단이 조직되어 동대문안 광무대에서 흥행한 적이 있다. 그 이듬해 서울에서는 여기저기 극단이 생기기 시작함. 이화단은 <삼인조장>, <형제병사>, <군인구투> 등을 공연(12회, 33.8.29)

⑥ 윤백남, <朝鮮演劇運動의 二十年前을 回顧하며>, 『극예술』 1, 34.4 (인용자 요약 정리)

1911년 4월 조일재와 함께 단성사에서 임성구의 연극을 관람. 이때 조일재는 <불여귀> 번역에 열중. 임성구는 듣지 못하던 이름. 관람료는 10전, 20전, 30전 할 때임. (19쪽)

무대 면막에는 <조선 신파원조 임성구 일행>이라고 써 있었음. (20쪽)

<三人曹長>(?)<sup>18)</sup>이라는 12장의 신파극을 보았다. 임성구가 시대와 현실을 초월한 군복을 입고 군도를 한 손으로 쥐고 군대식 걸음으로 花道에 등장하여 독백하는 것으로 연극이 시작됨 (21쪽)

⑦ 玄哲, <눈물의 舞臺를 밟고 간 이들>, 『조광』 2, 35.12.

筆者도 林聖九氏를 알게 된 때는 東京서 氏를 만나게 된 것이다. 當時는 演劇을 研究한다고 東京으로 왔는데<sup>19)</sup> 이 때는 벌써 林聖九 一行의 革新團이라는 劇團이 그 全盛時代를 지나 良心的으로 다시 좀더 新智識을 注入하여 보았으면 하고 東京으로 온 것이다. (87쪽)

17) 이 사실은 ⑧의 좌담에서 이기세로부터 그것은 '唯一團'의 경험이었다고 지적받는다(이에 대해서는 이기세, 「新派劇의 回顧」, 『每日申報』, 37.7.2~9. 참조).

18) 윤백남 자신이 붙인 의문부호임.

19) 1914년 6월 17일에서 10월 10일까지의 일이다.

出發된 時期는 只今으로부터 二十五年前 隆熙四年의 翌年 明治四十四年 十二月이었다. 그 當時에 ‘멤버’를 말할 것 같으면 座長에는 林聖九, 座員으로서는 韓昌烈, 高秀哲, 金順漢, 黃活三, 安錫鉉, 林雲瑞, 李元圭, 鄭明求, 金泰植 等 諸氏이였고 그 때 資本을 낸 이는 只今 仁川서 朝鮮日報 支局을 하는 朴昌漢氏이었다. (87~88쪽)

그러면 朝鮮에 劇이란 卽 新派劇이라는 것이 새로이 생겨서 第一 첫 번에 上演한 곳이 어디메나 하면 只今은 없어져서 그 形體도 볼 수 없고 일홈도 몰르게 되었지만은 그 當時에는 京城서 二流劇場이라고 할 만한 南大門 밖에 있던 御成座라고 하는 곳이었다. 이 극장은 朝鮮人을 相對로 하는 것이 많이고 日本 內地人을 相對로 하는 劇場이었으나 劇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는 그만큼 相當한 成績을 보게 되어 이것이 第二次로는 洞口內 團成社에 興行하게 되었으니 (88쪽)

御成座에서 第一回 興行이 意外로 좋은 成績으로 마치자 그 當時 日本內地人 小松이라는 이의 招請으로 京城劇場에서 開演하기가 되었으니 第一回 御成座에서 確實히 될 것 같은 自身을 얻은 그네들은 이 機會로 劇具와 背景等의 若干을 買收하여 第二回로 本格이라고 할는지 좀 器具도 使用해 가면서 背景이라고 할 것 같은 것도 붙어 놓고 演劇을 始作하게 되었다. 이 第二回의 興行은 二十日間 意外의 好成績을 얻었고 곧 仁川으로 地方興行을 始作하게 되었다. 場所는 只今 愛館인 其當時 築港座에서 一週間 興行에 또 好成績으로 莫大한 收入을 보게 되었고 그 收入에서 實費를 除한 外에는 當地 某私立學校에 寄附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크게 所聞이 나서 林聖九一行 革新團의 聲名이 알리게 되었다. (88~89쪽)

(일본의 신파극의 레파토리와 구찌다테식을 설명하고는-인용자 주) 이것까지도 우리 朝鮮劇界에서 가져 온 것이니 革新團이 模倣해 온 演劇도 이것이였었다. 外形으로 이러한 여러가지로 본을 떠왔고 內容으로도 그 演題가 第一回 公演에 <軍人の 氣質>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可히 斟酌할 수 있을 것이다.(90쪽)

이리하여 前述한 바와 같이 革新團이 大盛況으로 仁川의 興行을 마치고 서울로 오니 그때 京城에는 一心團이니 革新鮮美團이니 하는 것이 생겼다. (91쪽)

⑧ 좌담, <이 땅 演劇의 潮流>, 『동아일보』, 39.2.28~3.17.

李基世氏 : 조선사람으로 처음 연극을 시작한 것은 대정 二년엔가에 경성 어성좌(御成座)에서 처음으로 신파(新派)를 한 임성구(林聖九)군이시오.

安鍾和氏 : 아니, 그 이전이겠지요.

李基世氏 : 아, 참. 명치 四十一년 경이로군. 임성구군은 본래 수좌(壽座)와 경성극장(京城劇場)에서 신번(下足番)을 하던 사람인데 그 동안에 신파를 배웠지요. (39.2.28)

(……)

安鍾和氏 : 처음 각본이 <불효천벌(不孝天罰)>이었지요?

李基世氏 : 아닙니다. 일본 내지 각본 <화도대좌(樺島大佐)>를 모방한 것이었는데 예제(藝題)는 잊었지만 하여튼 <의병대장 전록두(義兵大將 全綠豆)>를 주인공으로 하였었습니다. 전록두가 적군에 잡혀 갔는데 항복(降伏)하면 노하준다 하나 끝까지 항복 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二回)이 <불효천벌>이지요.

安鍾和氏 : 그때 연기(演技)는 신기했던가 봅시다. 순사가 절도(竊盜)를 포박하는 장면을 보고 관중들이 모두 순사가 자기들도 잡으러 온 줄 알고 도망하여 버려 제一回 공연은 실패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39.3.1)

⑨ 안중화, <初創期 秘話>, 『동아일보』, 39.3.23~4.11.

일찌기 종현 천주교당(天主教堂) 뒷문(現 本町 二丁目 附近) 과일점에서 임(林)의 발안으로 혁신단을 조직하여 가지고 남문 밖 어성좌(御成座)에서 <불효천벌(不孝天罰)>이란 극으로 첫 개막(開幕)을 하였었다. 그러나 극장의 위치 관계상 청패손님만을 상대하게 되어 이내 一회를 실패하여 버리고 二회 개막 준비의 무대 연습을 궁터 안 김순한(金順漢) 방안에서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의 예제는 <十三人の 殺害>였다. (39.3.23)

이상의 언급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안중화의 『신극사 이야기』와는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심지어 안중화 자신의 언급 사이에도

일치하지 않는 점이 다수 발견된다.

논의의 필요상 먼저 안중화 자신의 언급들을 비교하여 보자. <무대 이면사>와 <초창기비화>에서는 제1회 공연이 ‘御成座’에서 있었다고 한 반면 『신극사 이야기』에서는 ‘어성좌’의 전신인 ‘南成社’라고 하였고, 『신극사 이야기』에서는 제1회 공연 연습을 김순한의 집에서 했다고 했는데, <초창기비화>에서는 이 일은 제2회 때의 일로 되어 있다. 또한, <무대이면사>에서 제1회 공연 대본으로 <불효천벌> 외에 <효자열녀>와 <십삼인의 살해>가 결정되었다고 하였는데 <초창기 비화>에서는 <십삼인의 살해>는 제2회 대본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듯 안중화의 언급들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들이 많은데, 그의 언급들에서 공통적인 사항을 찾아낸다면, 1909년 <불효천벌>의 공연과 단성사에서 공연, 그리고 인천 순회공연 등이다.

이번에는 안중화 외의 언급들을 검토하여 보자.

①의 언급은 ‘혁신단’에 직접 참가하였던 배우의 회고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혁신단’의 첫 공연을 ‘南成社’에서 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언급이나 이두현 교수의 검토<sup>20)</sup>를 미루어 볼 때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도 ①에서 주목할 사항은 ‘밤마다 대입만원의 성황’을 이루었다는 언급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데, 우선 제1회 공연은 『신극사 이야기』 이후 정설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공연이었다는 점, 그리고 하룻밤 이상의 공연이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무대에서 꾸준히 공연한 배우의 데뷔 때의 추억을 일반적으로 신용한다면 이는 안중화의 언급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그것이 서른 두 살 때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신용도는 안중화의 그것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②에서는 특별한 사항을 발견할 수는 없고, 신파극에 대한 비난적

20) 『한국신파극사연구』, 46쪽.

인 필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점에서 이 글은 필자 자신의 ⑤에서의 언급과 대비하여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철이 지닌 연극관의 변모와 그 궤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sup>21)</sup>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은 ‘혁신단’의 신파극이 일본 행려극단<sup>22)</sup>의 군사극을 모방하여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③에서는 ‘혁신단’의 시작이 1911년 봄이며 ‘御成座’에서 첫 공연을 하였으나 잘 알려지지 않아 몇 달 후에 ‘團成社’에서 공연하면서 ‘新派元祖’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중 ‘1911년 봄’의 부분은 ⑥에서 ‘단성사’의 연극을 1911년 4월에 보았다는 언급과 다소 어긋난다. 이 점에서 시기에 관한 언급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④에서는 1911년 ‘御成座’에서 공연한 것, 그리고 수월후에 ‘團成社’에서 제2회 공연을 올린 것을 알 수 있다.

⑥에서는 ‘단성사’에서의 공연을 1911년 4월이라고 하였고, 이 때 조일재는 <不如歸>를 번역중이었다고 하였다. 이때의 공연 제목은 확실하지 않지만 <삼인조장>이라고 하였는데<sup>23)</sup>, 아무튼 이 때의 공연이 군사극이었던 것은 짐작할 수 있다.

21) 이에 대해서는 줄고 「1920년대 신파극·신극 논쟁연구」, 『한국극예술연구』 2, 태동, 1992. 참조.

22) 이는 3)에서 윤백남이 ‘田舎廻 劇團’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당시 이러한 행려극단은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이에 참가하여 활동한 배우를 ‘田舎役者’(いなかやくしゃ)라고 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早稻田大學 演劇博物館 편, 『演劇百科大事典』 1권, 平凡社, 1990, 195쪽 참조).

23) 안중화는 5)에서 ‘이화단’의 레퍼터리 중의 하나가 <삼인조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신문기사에서 <삼인조장>이라는 연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화단’의 경우는 <雪上寒梅>(12.10.4), <軍人懲惡>(12.10.6) 외에는 레퍼터리 소개 없이 공연한다는 사실만 간혹 광고하였을 뿐이다. 그 이유로 ‘이화단’ 스스로 ‘낮에 연습하여 밤에 흥행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매일신보』, 12.10.29) 이는 당시 대부분의 신파극단의 마찬가지로 현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⑦은 현철이 신파극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고자 한 언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혁신단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우선 그 자신이 임성구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철은 1911년에 일본 유학길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임성구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율희 4년의 익년 명치 44년(1911년) 12월’이라고 하는 ‘혁신단’의 출발 시기에 대한 언급은 매우 자신감 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율희 4년은 1910년 한일합방의 해이고 그 다음의 1911년은 자신이 도입한 해이므로 ‘혁신단’의 출발시기와의 일치점을 20여년 후의 시기에서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성좌’에서 1회 공연을 하였는데 예상 외의 호성적을 얻었다는 것, 그리하여 ‘단성사’에서 2회 공연을 20일간 개최하여 역시 성황을 거두어 인천으로 지방공연을 떠날 수 있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혁신단’이 유명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위의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신파극 활동을 소개하고는 마찬가지로 한국의 신파극도 그러한 군사극을 모방하면서 출발하였고, 이는 ‘혁신단’ 제1회 공연의 연제가 <군인의 기질>임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혁신단’의 제1회 공연 레퍼터리가 <불효천벌>이 아닌 <군인의 기질>, 아니면 그 무엇의 군사극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⑧의 좌담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 준다. 우선 ‘혁신단’ 시기와 관련하여 이기세는 대정 2년(1913년)을 말하였다가는 명치 41년(1908년)으로 수정하였다는 점이다. 1913년의 시점은 이기세가 주도한 ‘唯一團’(1912.11. 창립 공연)의 활동이 그 전성기의 성황을 이룬 시점인데, 그 때를 ‘혁신단’의 출발점으로 삼았다가 이보다 훨씬 이른 1908년으로 수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이기세는 ‘혁신단’ 창립 시기

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면서도 자신의 활동 때보다는 심정적으로 매우 이른 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혁신단’ 1회 공연의 레퍼터리를 <불효천별>이 아닌 그 무엇의 작품으로 주장하면서 안중화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이다.<sup>24)</sup> 이기세는 제1회 공연의 레퍼터리가 일본의 <화도대좌>라는 작품을 모방한 것으로서 예제는 잊은 채 그 내용을 ‘전봉준의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 때의 공연이 군사극이었음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 이 점은 ⑦에서 현철이 제1회 공연으로 <군인의 기질>을 언급하고 있는 점과 의미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의 제반 언급들을 종합하여 볼 때 몇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는 바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혁신단’ 창립 시기는 1909년(혹은 1908년)과 1911년으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 제1회 공연을 <불효천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안중화뿐이다. 3) 현철과 이기세는 제1회 공연으로 군사극의 작품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이 <군인의 기질>일 가능성도 있다. 4) 제1회 공연은 성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5) 제2회 공연은 ‘단성사’에서 있었으며 그 후에 인천으로 가서 공연하였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이러한 제반 사항의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당시의 신문자료에서 놓치고 있는 기사나 광고가 혹시 없는지를 다시금 면밀히 검토하여, 위의 언급들 중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사항들을 모아서 당시의 상황을 재구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자료의 검토는 편의상 공통점이 많은 항목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24) 이에 대해서 안중화는 별다른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는 그 연배로 보아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 IV. '혁신단'의 광고와 '단성사' 공연

'혁신단'의 광고는 널리 알려진 대로 『매일신보』의 1912년 2월 18일자에 처음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新派演劇元祖  
革新團  
林聖九一行  
舊曆正月一日로부터  
中部 演興社  
寺洞  
에서 大 大 的 으로 開演  
初日의 演題  
六 穴 砲 強 盜  
開演時間  
每日 午後六時三十分  
明治四十五年二月十八日  
林聖九一行主任兼  
社長 朴昌漢

'혁신단'은 왜 이렇게 초호 활자로 광고를 크게 내었을까. 이는 다른 극단과의 경쟁심리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문 의 광고는 '혁신단'의 위의 것이 처음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이른 1912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계속된 '革新鮮美團'이 처음이다. 이 광고는 다음과 같다.

## 廣 告

本團에서는 朝鮮在來演劇이 甚히 幼稚하야 到底히 進歩호는 世人에게 滿足을 與호기 不能호므로 新히 現今日本內地에서 歡迎을 受호는 中 人 新派劇을 模倣호야 最히 斬新호는 趣向을 擬호야 來舊曆 正月二日브 터 中部 團成社에서 開演호겟사오니 大方諸君은 陸續 來觀호시옵

舊十二月二十六日

革 新 鮮 美 團

‘혁신선미단’의 이 광고는, 자신들이 일본의 ‘신과극’<sup>25)</sup>을 모방하여 참신한 연극을 보여 주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5일간 계속하여 광고하여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혁신단’의 초호 광고는 따라서 위의 ‘혁신선미단’의 선전을 의식한 것이다. ‘혁신선미단’이 그 명칭을 ‘혁신단’을 변형시킨것, 그리고 스스로 일본 신과를 모방하였다고 분명히 밝힌 사실은 ‘혁신단’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 ‘혁신선미단’ 이전에 ‘혁신단’이 세상에 알려져 있었던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자.

中部 罷朝橋 團成社에서는 近日 各種의 新演劇을 設行호는디 壯觀의 演劇이 有호다 하야 昌德宮에서는 日間 該演劇을 召入호샤 御觀覽호신다더라<sup>26)</sup>

이때의 신연극이 무엇일까. 당시의 신연극이란 내용과 형식면에서 ‘새로운 극’을 의미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때의 연극이 지금껏 비판 받던 창극류가 아님은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임금이 직접

25) ‘신과극’이라는 명칭은 이 ‘혁신선미단’의 광고에서 처음 보인다.

26) 『每日申報』, 1912.1.6.

보고자 할 정도이니 당시로서는 매우 새롭게 받아들여진 연극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날 동일한 지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도 눈에 띈다.

### 宋子の 演劇觀覽

子爵 宋秉峻氏는 再昨日에 內地人 巡查 一名을 帶同하고 中部 罷朝橋 團成社 演劇을 觀覽한 後 金貨 二圓을 寄附하고 贊成하는 意를 表하였다더라

원각사 시절부터 연극에 관심이 많던 송병준이 관람하고 찬성의 표시로 금화 2원까지 기부할 정도의 연극이니 분명히 장안의 이목을 끈 새로운 연극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이 연극이 ‘혁신단’의 공연일 가능성은 없을까.

1912년 1월 23일 자 『매일신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 演劇後花鬪

團成社 演劇場에서 一般 事務員等이 演劇을 終了한 後이면 該事務室內에서 花鬪局을 設해야 多數의 得失이 有하다 故으로 一般 警官이 注目한다더니 再昨日 午前 二時頃에 花鬪局을 又爲設行하다가 發覺되야 韓昌烈, 許起鳳, 權光植, 林龍九 等 五名이 所管 警察署에 被捉하였다더라

이 기사에는 신파극 배우 한창렬과 임용구 등의 이름이 눈에 띈다.<sup>27)</sup> 이를 보면 이 단성사의 연극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혁신단’의 제2회 공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만으로 이 공연이 ‘혁신단’의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단성사의 광고를 보자.

---

27) 1912년 1월 24일자에는 이들이 처벌받는 내용의 기사가 다시 실린다.

本社에서 新演劇을 設行하여 開演하옵다가 陽曆 一月二十六日부터 停止하옵는 理由는 革新團이 日就月將되어 本社가 狹隘하옵기로 一層 華麗하옵게 改築할 豫定이옵고 其間 外方에서 有志紳士가 革新團一行을 請하여 一次 觀覽을 要하옵기로 發行하얏다가 限 二週日後 回還하여 陰曆 正月에 本社를 一新 修理하옵고 開演할 터이오니 兪君子는 照亮하심을 敬要함

團成社 告白<sup>28)</sup>

이를 보면 위에서 언급되었던 신연극이 ‘혁신단’의 공연임이 비로소 분명해진다. 그리고 그의 공연은 약 20일간이었음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으로 떠난다고 되어 있으니 이는 아마도 인천 출장 공연을 의미하는 것이 될 터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⑦의 현철의 언급이 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진술임도 분명해진다.

위의 현철의 언급대로 ‘혁신단’이 인천 흥행을 마치고 서울로 오니 그 동안의 ‘혁신단’의 명성을 등에 업고 ‘일심단’<sup>29)</sup>이니 ‘혁신선미단’이니 하는 극단이 생겨났다. 게다가 ‘혁신선미단’은 ‘혁신단’보다 먼저 ‘단성사’에서 ‘신파극’을 한다고 선전까지 하였으니 ‘혁신단’으로서는 경쟁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무엇인가 더 나은 점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초호 활자로 ‘신파원조’임을 내세우며 2회 레퍼터리 중 가장 인기를 모았다고 하는 <六穴砲強盜>를 연제로 내세우게 된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1912년 1월 중에 ‘혁신단’은 ‘단성사’에서 약 20일간 공연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단성사’ 공연의 전후 맥락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28) 『매일신보』, 1912.1.26.

29) 이 극단에 관한 신문기사나 광고는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보아 뚜렷한 활동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안중화는 ‘혁신단’이 제1회 공연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겨울 동안 ‘경성좌’에서 해산한 일본 ‘청년파일단’의 배우 小松으로부터 연극을 배워 ‘단성사’에서 개연하였다고 한 반면, 현철은 1회 공연의 성공에 힘입어 ‘경성극장’(경성좌)의 小松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었고<sup>30)</sup> 이에 자신을 얻은 ‘혁신단’은 본격적인 설비와 기구를 준비하여<sup>31)</sup> ‘단성사’에서 개연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제1회의 공연이 성공적이었는가 아닌가와 결부된다. 제1회 공연이 실패하였고 게다가 단 하루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는 안중화의 언급은 <불효천벌>의 공연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렇게 제1회의 공연이 실패하였다는 언급은 안중화가 유일할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의 공연에 배우로 무대에 섰던 ①의 이원규의 회고를 신빙하지 못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물론 이원규의 언급이 그 후의 ‘연흥사’의 공연을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①의 문맥상의 의미는 분명히 창립공연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1회 공연에서의 자신이 없이는 시내의 ‘단성사’에서 개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1회의 공연이 대성공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안중화의 표현처럼 하루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는 식은 과장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제1회의 공연은 비교적 성공을 거둔 공연이었음을 알 수 있다.

30) 이 공연이 이루어졌다는 언급은 없다. 문맥상으로 보아 제의를 받은 사실만 드러날 뿐이다. 이와 함께 ‘혁신단’에 대한 小松의 역할은 아주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겨우내 그를 스승으로 하여 연극을 연습하였다고 하는 일반적인 판단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아마도 조연 정도의 역할은 가능하였을 것이며, 그를 통해 배웠다 하더라도 1회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지나친 것으로 여겨진다.

31) 이에 대해서 안중화는 『신극사 이야기』에서 ‘단성사’와 공동으로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성사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의미가 되고, 이는 제1회의 성공을 전제로 할 때 이해하기가 보다 쉬워진다.

## V. <화도대작> 모방작의 실체

안중화는, 제1회 공연으로 <불효천벌>을 무대에 올렸으나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로 무대 위에 등장한 순사가 정말로 자신들을 잡으러 온 것인 줄로 안 관객들이 놀라서 극장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sup>32)</sup>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1913년 공연되었을 때의 광고문을 살펴보면 이 작품은 순사가 범인을 체포하는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광고는 다음과 같다.

이 예제는 성정이 불량하여 모친을 박딤하여 죽기에 이른 죄로 천벌로 비암이 몸에 감기였다가 제 죄를 진실이 기과후 후 비암이 풀니고 온전한 사람이 된 연극이오니 일초 관람하심을 북망<sup>33)</sup>

이를 보면 안중화의 언급은 어떤 다른 작품의 공연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안중화의 이러한 언급은 1939년의 좌담(위의 ⑧)에서도 계속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기세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기세 자신이 ‘혁신단’ 창립 공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sup>34)</sup> 그런 것일텐데, 분명한 것은 안중화는 제1회 공연은 <불효천벌>로서 그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실패하였다고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광고를 보면 <불효천벌>은 순사가 범인을 검거하는 내용과 관계가 없고, 그렇다면 그 공연은 군사극이거나 탐정극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안중화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사실을 하

32) 위의 ⑤의 언급 참조.

33) 『매일신보』, 1913.11.21.

34) 이기세 자신의 회고에 의하자면 자신은 명치 43년(1910년) 봄에 일본에 갔다가 명치 45년(1912년)에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신이 귀국하기 전전해인 명치 43년(1910년)에 ‘혁신단’이 ‘御成座’에서 조직되었다고 말하고 있다(『新派劇의 回顧』, 『每日申報』, 37.7.2~9. 참조).

나로 묶어서 잘못 알고 있음이 분명하다.

오히려 안중화 외의, ‘혁신단’ 창립 당시에 성인층이었던 현철이 나 이기세<sup>35)</sup>의 기억에 의한다면, 제1회 공연은 <불효천벌> 아닌 어떤 군사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들 중 아무도 제1회 공연을 직접 본 사람은 없으므로 그 후에 전해 들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겠지만, 이기세는 1912년부터 신파극단 ‘唯一團’을 실제로 이끌었고(이 점에서 윤백남도 마찬가지이다), 현철은 1920년부터 연극활동을 펼쳤으므로, 안중화가 들은 이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들의 언급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상에 의해 우선 ‘혁신단’의 제1회 공연은 <불효천벌>이 아닌 그 어떤 군사극으로 가정해 두자. 그렇다면 일본의 <화도대좌>를 모방한 공연이 과연 있었는가부터 생각해 보자. 1910년대의 『매일신보』 지상의 기사나 광고를 검토해 볼 때는 이 점은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공연이 분명히 있었음은 안중화의 ⑨의 언급의 지면에 함께 실린 배우 林雲瑞의 분장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군인으로 분장한 그의 사진 설명은 ‘혁신단 창립 때 간부, 대좌로 분장한 임운서(林雲瑞)씨’라고 소개되어 있다.<sup>36)</sup> 따라서 이 때의 공연이 <화도대좌>와 관계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화도대좌>라는 공연은 일본에 있었는가.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일본연극사에서나, 당시 한국의 일인극장에서의 일본극단의 공연 레퍼터리에서도 <화도대좌>라는 연제는 발견되지 않는다. 만일 ⑧에서의 이기세의 언급이 착각이 아니라면 혹시 ‘화

35) 참고로 이들의 출생연도를 보면, 안중화가 1902년, 현철이 1891년, 윤백남이 1888년, 이기세가 1889년 등으로, 1911년에 안중화는 9세, 현철이 20세, 윤백남이 23세, 이기세는 22세가 된다.

36) 『동아일보』, 39.3.23. 이 사진은 이보다 앞선 안중화의 ⑤의 언급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이 때의 설명에는 ‘창립초기’라는 보다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어 있다.

도대좌'는 작품 이름이 아닌 주인공의 이름일 수는 없을까.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에서 공연된 일인연극의 배역을 면밀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

1908년부터 1910년 사이에 서울에 있었던 일본인 극장은 本町座, 京城座, 歌舞伎座, 壽座, 龍山座, 佐久良座, 御成座 등이다. 이중 경성좌와 가무기좌, 그리고 수좌가 일인연극의 중심무대였으며 나머지 극장들의 활동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당시 日文 신문인 『京城新報』가 창간(1907년 11월 3일)될 때부터 연예소식란을 두고 거의 매일같이 극장에서의 공연 레퍼터리를 소개하고 있는 기사를 검토하여 보면 명확해진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배역의 이름으로 '화도대좌'가 들어 있는 공연이 있는데 <武士的教育>이 바로 그것이다.

이 공연은 가무기좌에서 1909년 6월 11일과 7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공연되었는데, 비교적 더 자세한 배역이 실명되어 있는 7월 23일자의 연예기사란을 보면 다음과 같다.

歌舞伎佐, 愛澤一座は中中の好人氣なるが明日の藝題は<武士的教育>全八場にして役割左の如し

橫島<sup>37)</sup>夫人道子(西井) 女中れ濱(本田) 人夫與作(金澤) 令嬢多見子(桂木) 占部初子(河野) 樺島大佐(角村) 人夫留公(玉川) 肴や常吉(中村) 軍曹井上(大和) 荒川少尉(間宮) 八百や常吉(小谷) 軍醫田所(小神) 衛兵島田(天草) 櫻田勇吉(愛澤) 歩哨兵時田(三島) 大田原少尉 火田島 權七(美崎) 人夫頭作兵衛 深谷與一(篠崎) 紳士山口實明(森山)<sup>38)</sup>

<무사적 교육>은 廣岡柳香作으로 川上音二郎에 의해 1903년 2월 동경의 市村座에서 공연된 작품이다.<sup>39)</sup> 그 내용은 확실히 알 수 없

37) 이는, 1909년 6월 11일 자의 기사를 참조할 때, '樺島'의 오식이다.

38) 『京城新報』, 1909.7.23.

지만 청일전쟁을 기화로 널리 성행하였던 군사극의 레퍼토리 중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다.

앞에서의 이기세의 언급을 신용한다면 일본의 <화도대좌>라는 작품은 바로 이 <무사적 교육>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⑦에서 현철은 제1회의 작품으로 <군인의 기질>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작품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가.

혁신단의 공연활동을 살펴보면 <군인의 기질>은 1912년 2월 20일, 7월 4일, 1913년 2월 13일의 세 차례에 공연되었고<sup>40)</sup>, <무사적 교육>도 마찬가지로 1912년 4월 6일, 4월 18일, 5월 24일의 세 차례에 걸쳐 공연되었다. 이를 보면 이 둘은 별개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군인의 기질>은 일본 극단에 의해 일인극장에서 공연된 기사가 눈에 띄지 않아 그 배역을 잘 알 수 없으며 따라서 '화도대좌'와의 관련성도 분명하지 않다.

이제 남은 일은 1911년 혹은 1909년 초겨울 과연 이러한 군사극 -<무사적 교육>이든 <군인의 기질>이든 간에-이 '여성좌'라고 하는 일인 극장에서 공연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 VI. '여성좌' 공연의 실체

'여성좌'는 1910년 5월에 준공되어 6월에 기념 인형극 공연을 개연하고 있음을 보아<sup>41)</sup> '여성좌' 공연을 전제로 한다면 혁신단의 공연은 1911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南成社'라는 일인 극장이 1911년까지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성좌'의 전신이 '남성사'라

39) 大笹吉雄, 『日本現代演劇史』, 白水社, 1990. 469쪽.

40) 물론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는 『매일신보』 지상에 언급된 기사 혹은 광고만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하 <무사적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41) 이두현, 앞책, 46쪽.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sup>42)</sup>

『京城新報』에서는 창간 이래 일인극장의 소식을 거의 매일같이 전 해 주고 있는데 이는 ‘어성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1911년 10 월부터의 ‘어성좌’에 대한 기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片岡鶴之助一座の浪花節芝居にして藝題は<天下大賊僞大久保>にして其の役割は左の如し (1911.10.5)
- ② 浪花節吉川今勝一座今晚の讀み物は  
百鬼夜行(鐵舟) 孝子迷印籠(孤舟) 東美談(虎圓) 怪賊紳士(今勝)  
血染のハンカチ(今勝) (1911.11.8)
- ③ 十七日より革新浪花節新演劇タイムス團の新派劇と云ふ新安物にて開場すと藝題は<武士的 教育>なりと (1911.11.17)
- ④ 其後初日を延期したる同座新浪花節劇タイムス團は愈愈二十一日初日を決定せり藝題は既報<武士的教育>なりと (1911.11.21)
- ⑤ 浪花節新派演劇にして藝題は<江戸屋房五郎>なりと (1911.11.22)
- ⑥ 新派浪花節タイムス團二十三日の藝題は<血縁仇血涙>なりと (1911. 11.23)

이것은 ‘혁신단’이 제1회 공연을 개연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시기의 ‘어성좌’에 대한 당시 『경성신보』의 기록으로, 1911년도에 는 이 이후의 ‘어성좌’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동안 거의 매일같이 공연 안내 기사를 실은 『경성신보』의 전례에 미루어 볼 때, 위의 기사 중에 ‘혁신단’과 관계 있는 항목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그러므로, 비록 위의 기사 중에 ‘혁신단’ 혹은 ‘임성구’라는 이름이 보이지는 않지만, 앞절에서 밝혔던 ‘화도대좌’와 관련있는 <무사

42) 『매일신보』 1913년 11월 25일자 의 기사에 영신단(英新團)일행이 남대 문 밖 ‘남성사(南成社)’에서 공연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남성사’는 ‘어성좌’보다 뒤늦게 무대가 된 극장임을 알 수 있다.

적 교육>이라는 작품이 연제로 들어 있는 ③의 항목을 우선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1911년 11월 17일부터 ‘革新浪花節新演劇’ ‘타임스團’이 <무사적 교육>이라는 신파극을 공연하기로 하였다는 이 기록은 뒤이어 ④에 서는 이 작품이 21일로 연기되어 공연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⑤와 ⑥에 의해 이 극단은 22일에는 <江戸屋房五郎>을, 23일에는 <血縁仇血涙>라는 작품을 공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타임스團’은 1911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공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 ‘타임스團’이란 명칭은 무척 이채로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신파극단의 명칭은 ‘○○座’ 혹은 ‘○○一行’ 식으로 불리는 것이어서 ‘○○團’이란 명칭은 매우 드물며, 게다가 외국어를 사용한 위와 같은 명칭은 대단히 낯선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당시 한국에서 공연하는 일본인 극단의 경우는 ①과 ②에서 보듯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주체의 이름을 밝혀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경성신보』의 공연안내기사 중에서 유독 위의 ‘타임스團’만 외래어 표기로 되어 있으며 그 주체의 이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하여 볼 수 있는데 첫째, 그 주체를 밝힐 만한 계대로 된 극단이 아니거나, 둘째, 그 이름이 잘못 전해졌든지 아니든간에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극단이거나 하는 것이 그것이다. 아니면, 당시 한국을 경유하여 만주까지 순회하였다고 하는 무명의 행려극단 중의 하나가 ‘타임스團’일 수도 있다.<sup>43)</sup>

43)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극단들이 여러 지방으로 떠돌아다녔기 보다는 당시의 일본극단들은 하나의 극장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하였으며, 그 중에는 오늘날 일본연극사에 이름이 남아있는 배우의 일행도 있다. 이 때에는 일반 기사 속에서 이 사실을 크게 취급하였는데 가령 伊東文夫의 渡韓을 소개한 것(1909.7.6)이 그러하다. 이 배우를 중심으로 한 ‘伊東文夫一座’는 1910년까지도 여전히 체류하면서 수좌를 중심으로 하여(1909.9.16) 인천의 ‘歌舞伎座’에서 공연(1910.3.12)하기도 한다. 이를 보면 당시 내한했던 일본극단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평가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浪花節’의 의미이다. ‘節(ふし)’이란 음악 용어로서 원래는 ‘音의 진행의 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장 넓은 것은 歌詞에 대한 音樂을 지칭하는 명칭이다.<sup>44)</sup> 그리고, ‘浪花節(なにわふし)’이란 공연양식의 명칭으로서 ‘浪曲(ろうきょく)’이라고도 하는데, 한 사람이 三味線の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는, 일본 關西지방을 중심으로 1700년대 이래 성행해 온 공연 예술이다. 이러한 ‘浪花節’은 明治 말기부터 일본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며, 大正期 이후에는 레코드의 발달에 힘입어 대중적인 예술로서 각광을 받게 된다.<sup>45)</sup> 이 ‘浪花節’의 연극을 ‘浪花節芝居’(ふしげき)라고 하는데 음악의 부분을 해설로 바꾸어 진행하면서 극을 진행시키는 것으로서 그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에도 지방 순회극단(田舎まわり)에서는 이 연극을 때때로 공연하고 있다.<sup>46)</sup> 그러니까 ‘浪花節’을 연극으로 공연할 때는 음악 대신에 해설을 넣어서 극을 진행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浪花節’은 1911년 여름부터 한국에서도 공연되기 시작했는데 다음과 같은 기사가 이를 잘 말해 준다.

浪花館 十八日より浪花光廣一行の浪花節なり初日の讀み物左の如し  
五郎正宗(吉川小蝶) 田宮新十郎(京山若圓) 伊豫和靈實記 義士銘銘  
傳勝 田新左衛門 黃門西國漫遊記(浪花光廣) (1911.7.18)

浪花館 大阪親友派青年團浪花節虎筆嬢一行の浪花節にて十二日初日

현철(②)과 윤백남(③)의 언급은, 이들의 연극을 모방한 ‘혁신단’의 활동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견해이든가 아니면 실제로 임성구가 많은 극단들 중에서도 수준 낮은 극단의 연극을 배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4) 平凡社版, 『演劇百科大事典』, 5권 31쪽 참조.

45) 『演劇百科大事典』, 4권 277~278쪽 참조.

46) 위책, 5권 36쪽 참조.

を出すべしと読み物左の如し (1911.8.12)

이러한 ‘浪花節’ 공연은 당시에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浪花館’에서 주로 공연<sup>47)</sup>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위의 ①의 ‘어성좌’ 공연을 보면 ‘浪花節芝居’도 당시에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혁신단’의 연극은 이러한 ‘浪花節’ 연극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윤백남의 회고를 보자.

이윽고 幕이 열리자 舞臺에는 아즉 한 개의 人物도 登場하기 前부터 拍手聲이 요란하였다. 幼稚하나마 舞臺背景과 道具裝備가 一般觀覽者에게는 처음 보는 新奇한 求景거리기 때문인듯 하였다.

趙(조일재-인용자주)와 나는 짜른 한숨을 지었다. 아즉도 멀었구나 하는 歎息이 제절로 터져 올랐다. 그러자 별안간 小鼓를 <똥똥 똥똥>치는 소위 <신(話)方>의 북소리와 함께 團長 林聖九가 時代와 現實을 超越한 軍服을 입고 軍刀를 한 손으로 쥐고 本舞臺로 들어섰다. 그리고 조금 쉰 목청으로 抑揚을 붙인 이상 야릇한 文字가 석긴 <세리후>를 獨白하기 始作하였다.

우리는 두 번째 긴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sup>48)</sup>

일본의 신파를 알고 있었던 윤백남과 조일재가 공통적으로 ‘혁신단’의 연극을 보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우선은 유치한 무대배경 때문이었지만, 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억양을 붙인 이상야릇한 문자가 섞인 대사’ 때문이기도 했다. 아마도 연극 시작 전 임성구의 해설을 지적하는 것이겠지만 이 때 이들은 임성구의 말투를 ‘억양을 붙인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47) ‘浪花館’의 명칭으로 보아 ‘浪花節’과 관계 있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浪花節’을 위한 전용극장인지는 불분명하다.

48) 尹白南, 「朝鮮演劇運動의 二十年을 回顧하며」, 『극예술』 1, 34.4. 21쪽.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본 신판의 본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설명이 된다.<sup>49)</sup>

그렇다면, 윤백남과 조일재가 주재한 ‘文秀星’의 창립공연 <不如歸>에 대한 공연평을 보도록 하자.

어린 아희들도 미오 잘 되얏고, 조중환(趙重桓)의 평강중장(片岡中將)으로 말하면, 그 테격이며 티도가 가히 룩군 중장 감이라 홀만하야 미오 잘 되얏스나, 그 쇼리가 좀 나져서 관람자에게, 잘 들니지 안이 하논 것이 결덤이라 하겠도다. (...)

괴자가 비우제군에게 한 마디 주의홀 일이 있스니, 다름 안이라 계 군은, 연극에, 성공홀지라도 관람자가, 아라보지 못하면, 성공이라 못 홀지니, 조중환씨던지, 윤교중씨던지, 누구던지 설명 잘 하논 니가, 다 음 막에서 하논 것을, 씹어 싱키는 것 못치, 설명하야 주논 것이 가하 다 하노라. <sup>50)</sup>

연기의 우수함을 칭찬하면서, 오히려 관객이 극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기자의 비평을 보면 ‘문수성’의 연극은 극의 해설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극의 내용을 등장인물이 아닌 제3자가 직접 해설하는 것이 극의 원리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며, 신극 도입기의 윤백남의 언급을 보면, 그가 일찍부터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음도 아울러 알 수 있다. 윤백남은 <演劇과 社會>(『東亞日報』, 1920.5.4~16)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49) 이러한 ‘혁신단’의 모습은 당시의 기자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 且 團長 林聖九의 徒然穴長한 科目의 說明은 其聲이 如泣如訴한 즉 此는 不可不 注意홀 바이오 (...) (『매일신보』, 1912.2.20)

50) 『매일신보』, 1912.3.31.

만약 연극을 무대상에 올림을 당하여 고의로 설교적 연구를 쓰게 하거나 安價의 교훈을弄할 것 같으면 그 극은 보는 사람이 반감을 야기케 하고 따라서 그 극이 자부한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볼 것이다. 51)

이렇듯 연극에서 해설이란 극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서사극적인 효과를 의식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점을 ‘문수성’은 초창기부터 의식하고 있었으며, 바로 이 점에서 ‘혁신단’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신파극의 초창기에는 歌舞伎의 영향을 받아 歌舞伎의 ‘쥬보(ちよほ)’가 남아 있었다. ‘쥬보’란 歌舞伎에서의 ‘義太夫’의 해설을 의미하는데, ‘義太夫(ぎだゆう)’란 일본의 인형극인 ‘淨瑠璃’에서 三味線 연주자의 옆에서 극을 해설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歌舞伎도 淨瑠璃의 영향을 받아서 歌舞伎 안에서 이러한 해설을 하는데 이를 ‘義太夫語り’라고 부른다. 이러한 ‘쥬보’의 연출적 효용은, 때와 장소의 지시, 서경·정취 표현의 보조, 등장인물의 소개, 극중인물의 심리·감정·의지의 설명, 배우의 동작과 대사등을 규정해 주는 것이다.52) 신파극이 이러한 歌舞伎의 영향을 벗어나 독자적인 공연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은 연재소설을 극화하기 시작한 明治 30년대(1897년 이후)에 이르러서이며, 그리고 이 때에 비로소 ‘신파’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1900년대인 明治末年期는 일본신파의 완성기이며 각지방으로 급속히 신파가 퍼져 나간 시기가 된다.53) 한국에서의 일본신파극단의 공연은 1907년부터 눈에 띄는데, ‘北村一座’는 ‘本町座’에서 『大阪毎日新聞』 연재 소설을 극화한 <嫁が淵>을 공연(1907.11.17)하고 마찬가

51) 『동아일보』, 1920.5.5.

52) 이에 대해서는 『演劇百科大事典』, 2권 205쪽, 4권 12쪽 참조.

53) 이의 시대구분은 柳永二郎, 『新派の六十年』, 河出書房, 1948. 8쪽 참조.

지의 연재소설인 <乳姉妹>를 공연(11.22)하는 등, 그 시작부터 소설 각색의 신파극을 공연한다. 이처럼 한국에 들어온 일본의 신파극단들은 그 전성기의 활동에서의 지방공연적인 성격을 띤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임성구가 배울 수 있었던 일본신파는 歌舞伎의 영향을 어느 정도 벗어난 신파극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임성구는 이상한 억양을 붙여서 해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신파를 아는 윤백남과 조일재는 깊은 탄식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혁신단'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문수성'은 창립공연으로 일본에서도 대작으로 평가되는 <불여귀>를 들고 나온 것인데, 이를 보면 제대로 된 신파를 보여주는 그들의 의도가 매우 강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浪花節芝居'를 상기하여 보자. 이것은 '浪花節'에서의 음악을 해설로 대신하여 극을 진행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歌舞伎에 있어서 쯔보에 의해 극을 진행시키는 것과 같이 浪曲을 쯔보처럼 사용하여 전개시키는 극'<sup>54)</sup>을 말한다. 즉, 음악을 해설로 대신한다는 것은 음악에 맞추어 노래 아닌 해설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 때의 해설은 자연스런 구어체의 대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浪花節' 또는 '浪花節연극'이 한국에서 1911년 가을에 성황리에 자주 공연되었으므로<sup>55)</sup>, 이를 임성구가 보았을 가능성이 많다. 이 연극은 신파에 비해 연극성이 뒤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무대 위에서 재현해 내기가 쉬웠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무대장치나 분장에 대한 노력도 그만큼 덜 소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타임스團'이 임성구의 '革新團'을 지칭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게

54) 『演劇百科大事典』, 5권 36쪽.

55) '浪花光廣一行'의 浪花節은 연일 만원을 이루었다고 소개되고 있다. (『京城新報』, 1911.8.2)

된다. 임성구는 보다 쉽다고 받아들인 ‘浪花節연극’을 신파로 꾸밀 생각을 하였고, 그 단체의 이름으로 자신의 성[林]을 연상하는 ‘타임스團’을 내세웠다는 것. 그리고 이에 무명의 한국인 극단에게 극장을 대관해 주는 데 따른 흥행상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극장측의 계산도 한몫 했으리라는 것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안중화는 ‘어성좌’의 공연시에, 관객들이 협률사 공연으로 잘못 알고 들어왔다고 말한 바 있는데(2절의 항목 3), 당시의 일인극장에서 협률사 공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관객도 대부분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공연을 협률사 공연으로 잘못 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안중화의 언급은 단편적인 사항을 나름대로 재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언급을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 볼 수는 없을까. 당시 일본인 관객들은 당연히 일본극단의 ‘浪花節’ 혹은 ‘浪花節연극’인 줄 알고 들어 왔다가 서툰 한국인 극단의 연극임을 깨닫고는 실망하여 대부분 나가 버린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이러한 추정은 ‘타임스團’이 ‘혁신단’을 지칭한다는 가설하에서 내린 것이므로 분명한 일본극단 ‘타임스團’의 존재가 확인되면 이는 완전히 무효화되는 추정이 되고 말겠지만, 그렇더라도 ‘혁신단’의 제1회 공연이 <무사적 교육> 혹은 <군인의 기질>의 군사극이라는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다.<sup>56)</sup>

## VII. <불효천벌> 공연과 1909년의 의미

<불효천벌>은 1913년 11월 21일에 연흥사에서 재공연된다. 그 때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56) 그러나 이 극의 내용이 이기세가 말한 것과 같이 ‘전봉준을 소재로 한 것’ 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혁신단 립성구일행(革新團林聖九一行)은 그간 휴연후야 연습중이러니 금 이십일일브터, 참신헌 예데, 불효턴벌(不孝天罰)이라 하는 것을 흥흥한다는데, 그 내용의 재미와 불효즈가 턴벌을 입어, 전신에 비암이 감기는 것은, 참 신귀하다더라

이 때 <불효천벌>을 ‘참신한’ 예제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불효천벌>에 대한 소개에서만 발견된다. 이러한 표현이 선전의 효과를 의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모방하지 않은, 혹은 새롭게 만든 작품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럴 때 이는 곧 예전에는 ‘불효천벌’이란 이름의 공연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타임스團’이 ‘혁신단’이라면 혁신단은 창립공연으로 3편의 작품을 사흘간 올린 것이 된다. 그런데, 이 때에 <불효천벌>은 없다. 앞의 ⑧의 좌담에서 이기세는 <불효천벌>은 제2회 공연이라고 하였고 안중화는 일관되게 제1회 공연은 <불효천벌>외 한 편 혹은 두 편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기세의 언급에서의 ‘제2회 공연’을 제1회 공연에서의 두번째 작품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이는 안중화의 견해와도 크게 상치되지 않는다. 그럴 때 <불효천벌>은 여성 좌연극 중의 <江戸屋房五郎>(1911.11.22)이 되어야 한다. <불효천벌>이 일본의 <蛇の執念>을 번안한 것이라고 할 때, <蛇の執念>의 주인공은 ‘林幸太郎’이므로<sup>57)</sup> <江戸屋房五郎>이 그 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이라면, 이는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불효천벌>이 사흘째의 연제인 <肉緣仇血淚>일 가능성은 없을까. 그렇지만 이의 여부를 현재로는 단정할 수 없다.

제2회의 공연이 ‘단성사’에서 1912년 1월에 약 20일간 동안 있었음은 앞의 4절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이 때의 레퍼터리를 안중화는

57) 『京城新報』, 1910.3.6.

<법지법>, <오호천명>, <가막돌>, <육혈포강도>, <진중설> 등이 라고 말하고 있는데(2절의 제6항) 이 중에도 <불효천벌>은 없다. 이들 레퍼터리 중에서 <육혈포강도>는 1912년 2월 18일에 공연되지만 다른 작품들이 1912년 이후에 공연된 흔적은 없다.<sup>58)</sup> 다만 <진중설>은 卞基鍾의 회고에 의해 ‘폭설이 나리는 싸움터에서 부모처자의 애정을 떠나 악전고투로 적을 물리치고 조국을 위하여 충성을 바치는 연극’<sup>59)</sup>으로 그 공연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 작품은 1912년 이후 혁신단의 활동이 본격화될 때 다른 예제로 공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제목이 주는 의미에 견주어 볼 때 ‘오호천명’이 <불효천벌>의 원제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립기의 <불효천벌>의 공연은 그 실증성을 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와 관계된 직접적인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채 단지 안중화에 의해서만 제1회 공연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안중화가 언급한 혁신단의 1909년 창립설이 된다. 안중화의 언급이 그의 완전한 창작도 아니며 사실 그대로도 아님은 앞에서 밝힌 여러가지 정황으로 분명해 졌다. 그렇다면 1909년을 혁신단의 시작으로 잡고 있는 그의 언급도 나름대로는 어떤 단편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1912년 2월 18일부터 혁신단은 ‘연흥사’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다. 이 때부터 1912년 6월까지의 레퍼터리를 알려진대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58) 김재철(④)이 말하고 있는 제2회 공연 레퍼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형살해>가 1912년 2월 21일 <친구의형살해>로 공연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불효천벌>은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59) 卞基鍾, 「演劇五十年을 말한다」, 『예술원보』 8, 예술원, 1962. 48쪽.

〈六穴砲强盜〉(12.2.18), 〈軍人の 氣質〉(2.20), 〈親仇義兄殺害〉(2.21), 〈兵士反罪〉(4.2), 〈青年立志孤兒少尉〉(4.3), 〈武士的 教育〉(4.6), 〈一女兩許〉(4.11), 〈少尉輝善捨子親罪〉(4.16), 〈貞婦鑑〉(4.17), 〈武士的 教育〉(4.18), 〈刑事苦心〉(4.20), 〈無典貸金〉(4.23), 〈軍人の 仇鬪〉(4.25), 〈有情無情遊女意志〉(4.29), 〈親仇義兄殺害〉(5.15), 〈青年立志孤兒少〉(5.16), 〈軍人仇討〉(5.17), 〈學生의 忍耐〉(5.18), 〈有情無情遊女意志〉(5.19), 〈義氣男子〉(5.21), 〈守錢奴〉(5.22), 〈六穴砲强盜〉(5.23), 〈武士的 教育〉(5.24晝), 〈烈女忠僕〉(5.24夜), 〈守錢奴〉(5.25), 〈少尉輝善捨子親罪〉(5.26), 〈六穴砲强盜〉(6.2), 〈自作孽不可活〉(6.12), 〈女强盜〉(6.13), 〈親仇義兄殺害〉(6.14), 〈可憐妻子〉(6.15), 〈己之罪〉(6.18), 〈烈女忠僕〉(6.19), 〈迷信巫女後業〉(6.20), 〈不幸親子〉(6.21), 〈四民同權教師輝志〉(6.22), 〈迷信巫女後業〉(6.23), 〈友情三人兵士〉(6.25), 〈孝子反罪〉(6.26), 〈可憐妻子〉(6.28), 〈無罪事必歸正〉(6.29).

이를 보면 약간의 중복이 있긴 하여도 약 4개월 동안 40여 개의 레퍼터리가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약 사흘에 한 개 꼴로 레퍼터리를 바꾸었다는 계산이 된다. 이러한 빈번한 레퍼터리의 교체는 신문연재소설을 극화하기 시작한 1913년 4월까지 계속된다. 그 이후는 소설의 극화가 아니면 기존의 레퍼터리를 반복해서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공연하는 활동을 펼치는 것이 전부이다. 이는 곧 혁신단의 많은 레퍼터리들은 거의 모두 1912년 한 해 동안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단 하루 혹은 이틀만에 새로운 레퍼터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면 그러한 창조성이 왜 그 이후에까지 계속 발휘되지 못했는가. 따라서 ‘혁신단’이 1912~13년 동안 공연한 많은 레퍼터리는 그때그때마다 새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만들어 둔 것이라는 결론이 생긴다.<sup>60)</sup> 바로 이 점에서 혁신단은 성공한 것이고 다른 실패극

60) 이 점에서 그들의 공연이 완전한 ‘구짜다데(口建)식’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단과는 달리 꾸준히 그 활동을 이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많은 레퍼터리를 저축해 둘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1911년 말부터 1912년 2월 사이의 기간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은 혁신단 광고를 보자.

新派元祖 革新團一行

創立 九週年 紀念 大興行

기막 이후로 미야의 만원의 성황을 주심은 무한이 감사함을 슈호노라 이에 예증호였든 창립 구주년 괴림 흥행에 지함이 이극가의 후의 툴 보답키 위호야 특별이 흥행을 중지호옵고 연극지료의 선택과 배우의 기예 연습을 필호옵고 막대한 급익을 가입호야 천 축력 오빅 축력의 전등으로 内外를 下夜城을 幻出케 호옵고 舞臺側面과 客席의 一面에 화려한 가화를 신비호야 八月 四日부터 紀念興行을 始演호겟소오니 空前絶後호 納涼劇을 玩賞호시옵

혁신단장 림성구 빅61)

이 광고는 1918년 8월 4일과 6일, 그리고 7일의 세 차례에 걸쳐 『매일신보』 지상에 실려 있다. 이 광고대로 1918년이 창립 9주년이라면 ‘혁신단’은 1909년에 창립되었다는 말이 된다.

아마도 이러한 사항은 사실일지도 모른다.<sup>62)</sup> 그러나, 극단이 언제 창립되었느냐는 실제로 중요한 것이 아니며, 공연을 개연함으로 해

61) 『매일신보』, 1918.8.4.

62) 임성구의 사망 소식을 다룬 한 신문기사에서는 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열두 해 전에 사동 연흥사에서 신파 혁신단(革新團)을 만드려 가지고 처음으로 기연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온 단장 림성구군(林聖九君)은 실상 신파계에는 원조라 하지 안이치 못하겠다(…)” (『매일신보』, 21.11.22)

이 기사에서 말하는 ‘열두 해 전’은 1909년이 된다. 따라서 ‘혁신단’이 처음으로 조직된 것은 1909년일 가능성이 높다.

서 실질적으로 그 극단은 창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문제는 언제가 제1회 공연이었는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가 1911년 초겨울의 어느 날이라는 사실만은 거의 불변의 사항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아마도 임성구 일행은 1909년부터 일인극장을 기웃거리면서 1911년의 제1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던 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레퍼터리를 메모하면서, 그리하여 이 때 마련된 대략적인 레퍼터리가 191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추상적인 극단 창립이 훗날 과장적으로 안종화에게 전해졌고, 안종화는 이에 맞추어 모든 사항들을 상향 조정하여 연극사를 재구성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겐 임성구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우호감이 한편으로 짙게 관여하였을 것이 틀림없다.<sup>63)</sup>

‘혁신단’이 한참 활동을 하고 있던 1914년의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는 ‘임성구’에 대한 가장 당대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명치 스십스년(1911년)부터는 흥연 감동한 곳이 있어서 신파연극을 조직하여 남대문의 여성좌에서 기연하니 그때에 연극이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적은 고로 일반 사람이 환영하는 자 적건만은 립성구의 전인불발하는 믿음은 련속하여 연극으로 성공할 생각이 드디어 삼스년을 지니인 오늘날에야 비로소 신파연극의 엇더한 것을 알게 되었스니 연극의 창시는 가위 혁신단을 원조라 하니로다 (...) <sup>64)</sup>

이를 보면 임성구가 1911년부터 연극을 시작하였다는 것이 분명히

63) 이는 안종화가 『신극사 이야기』에서 임성구를 애국지사 내지는 민족주의적 선각자로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64) 『매일신보』, 1914.2.11. 이 글은 ‘藝壇一百人’ 중의 열두번째에 해당하는 글이다.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인물들은, 임성구와 마지막으로 소개된 辯士 徐相昊와 李漢景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藝妓들이 특징적이다.

드러난다. 이상에서 1909년 ‘혁신단’의 창립은 임성구가 연극에 뜻을 둔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 VII. 결론 및 남는 문제

지금까지의 추론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안중화의 『신극사 이야기』에만 근거하여 <불효천벌>로 한국 신파극의 기점을 삼는 견해는 재고되어야 한다.
- ② ‘혁신단’은 ‘연흥사’에서의 공연 이전인 1912년 1월에 ‘단성사’에서 약 20일간 공연을 하였고 이후 인천출장 공연을 다녀 온다.
- ③ ‘혁신단’이 인천에서 돌아오자 이미 ‘혁신선미단’이 신파를 모방하여 연극을 한다는 것을 광고하였고, 이에 자극받은 ‘혁신단’은 새삼 ‘신파원조’를 내세우며 더 크게 광고를 내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육혈포강도>(1912.2.18)의 공연이다.
- ④ ‘혁신단’의 제1회 공연은 군사극이며, 그 레퍼터리는 <무사적 교육> 혹은 <군인의 기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무사적 교육>은 1911년 11월 21일에 어성좌에서 공연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주체인 ‘타임스團’의 정체는 불분명하지만 이 극단이 ‘혁신단’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럴 때 ‘혁신단’은 일본의 저급 신파 내지는 ‘浪花節芝居’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제1회 공연은 당연히 <무사적 교육>이 된다.
- ⑤ 임성구가 연극에 뜻을 둔 것은 1909년 여름으로 추정되며 훗날 이 때부터를 자신들의 창립기로 삼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추론은 단편적인 기록들에 의지해서 필자 나름대로 재구한 것들이기 때문에 안중화가 범한 실수를 또다시 재현할 가능성이 없

지 않다. 그러나 그 동안 무비판적으로 1911년 초겨울의 <불효처벌>로 한국 신파극의 시조로 삼고 그 때부터를 한국 신극사의 기점을 삼는 단일한 연구 자세는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단'의 신파극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띠고 출발하였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논문은 이를 위한 첫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서 초창기의 한국근대연극사의 온전한 모습이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1908년 '원각사'에서의 <은세계> 공연 이후 1911년의 '혁신단' 공연까지의 한국연극사는 그동안 공백으로 남겨져 왔다. 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다시 '혁신단'의 공연이 과연 신파의 효시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야만 한다. 물론 '혁신단'이 '신파 원조'를 분명히 내세웠고 당시 아무도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만큼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대의 상업극단을 전제로 했을 때만 성립이 가능한 사항일 뿐이다. 가령, 1910년 10월의 다음과 같은 기사가 말하고 있는 '신연극'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져야만 '혁신단'의 연극사적 위치도 한층 분명해질 것이다.

中部寺洞 演興社는 昨日부터 特別히 新演劇을 設行하고 風俗의 善良한 材料를 研究하여 逐夜改設함으로 觀覽者가 雲集한다더라<sup>65)</sup>

中部寺洞 演興社 演劇場에서는 風俗의 善良한 演劇材料를 研究하여 益益 擴張함으로 觀覽者가 逐夜雲集하느니라 男女의 席次가 靜肅하여 混雜한 狀態가 毫無하느니라<sup>66)</sup>

65) 『매일신보』, 1910.10.6.

66) 『매일신보』, 1910.10.11.

이 외에도 청년단체들의 연극(11.24, 11.32)에서 표방하고 있는 풍속 교정의 의미와 그 때의 연극실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밝히는 것과 그 밖의 몇몇의 素人劇<sup>67)</sup>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야만 할 과제가 된다.

결국 이러한 제문제는 <은세계> 공연이 지닌 '신연극'의 의미가 어떻게 계승 발전되면서 '혁신단'의 신파극과 연관되는가 하는, 초창기 한국연극사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때에만 해결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연구과제일 터이나 이는 필자의 준비 미흡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67) 가령 1910년 원산의 한 사립학교에서 개최한 早婚 비판연극 같은 것을 의미한다(『皇城新聞』, 1910.6.22. 기사 참조).